

동네병원 얼마나 어렵길래…40대 병원장 안타까운 죽음

개업 과정 대출금 등 심한 경영 압박에 자살한 듯

광주·전남지역 병·의원들의 경영 난이 심화하는 가운데 경영 압박에 시달려온 40대 병원장이 숨진 채 발견됐다.

최근 지역 병의원의 치열한 경쟁 때문에 선방의 대상이었던 의사들이 궁지에 내몰리는 상황이 자주 발생해 경찰은 병원장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이 아닌가 보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23일 새벽 0시30분께 광주시 광산

구 월계동 한 병원 주사실에서 병원장 A(44)씨가 쓰러져 숨져 있는 것을 사무장(31)이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발견 당시 A씨는 주사실에서 반듯이 누운 채 청장을 바라보고 있었다. 시신 옆에선 수면유도제(수면마취제)인 프로포폴 빈 용기가 발견됐다.

A씨는 숨지기 직전 사무장에게 “미안하다. 고맙다. 행복하게 잘 살아라”는 내용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보낸

환자 격감·경영난 등

광주, 폐업 병원 잇따라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지난 2010년 이 병원을 개원하면서 금융기관에 수억 원의 빚을 진 뒤 매년 천 만원에 달하는 이자 를 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최근 환자가 줄어 병원 운영이 어려워지면서 한 달 평균 300

만원에 달하는 관리비도 석 달간 내 지 못하는 등 심각한 경영난에 시달 려온 것으로 전해졌다. 또 일 년에 한 번씩 납부하는 교통유발부담금 53만원을 광산구청에 내지 못해 건 물이 압류되는 등 경영 압박을 받아 왔다.

경찰은 A씨가 최근 재무 문제로 고민을 해왔다는 직원 등의 진술로 미뤄 A씨가 경영난을 고민하다가 자살한 것이 아닌가 보고 정확한 사인을 조사 중이다.

병의원이 경영난을 겪는 것은 지난 4028억원에서 110억원 가량 증가했

다.

광주지역에선 동네 의원 10곳이 개원하면 8~9곳이 폐업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3년간 광주지역 개원 대비 폐업 의원의 비율은 ▲2010년 82.4%(57곳 개원 47곳 폐업) ▲2011년 112.6%(58곳 개원 65곳 폐업) ▲2012년 79.2%(53곳 개원 42곳 폐업)로 매년 줄지 않는 상황이며 2011년의 경우 폐업한 의원 수가 개원한 의원 수를 넘어서기도 했다.

/최승렬기자 srchoi@kwangju.co.kr
/김영희기자 kimyh@kwangju.co.kr

나로우주센터 보안 취약

국감자료, CCTV 화질 낮아 얼굴 식별 불가…경계·감시도 허술

국가 핵심 보안시설로 분류되는 고 흥 나로우주센터의 보안이 취약한 것 으로 나타났다. CCTV의 경우 화질이 크게 떨어져 야간에는 식별이 불가능하고 대낮에도 물체 움직임만 확인하는 등 사실상 ‘무용지물’인 실정이다.

이상일 새누리당 의원이 23일 한국 항공우주연구원에서 제출받은 공개한 ‘나로우주센터 보안장비 현황’에 따르면 고흥 나로우주센터 내 설치된 128개의 CCTV 화질이 38만 화소에 불과, 얼굴 식별 및 차량 번호 구별이 불가능한 실정이다.

우주센터에는 발사대 인근에 26개 의 CCTV를 설치한 것을 비롯, 발사 통제동(17), 종합조립동(15), 위성시

혔다.

국정원은 지난 6월 나로우주센터 2 단계 확장사업’과 관련, ▲외곽울타리 단선 구축에 따른 월당 방지능력 저하 ▲침입감지설비 설계 미반영 ▲비인가자 차단을 위한 출입통제 설비 미흡 등을 지적하기도 했다.

그나마 작동도 제대로 되지 않아 지난 2010년 이후 영상 전송 고장, 화면 노이즈 발생, 모니터 표출 고장 등 의 사유로 정비한 횟수만 50회에 달 한다.

이 의원은 “해안가의 특성상 강한 바람과 높은 습도로 노출된 보안 장비들의 내구연한이 계속해서 짧아지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허술한 경계·감시도 도마위에 올



적십자봉사원 대회

23일 오전 영광군 스포티움 체육관에서 광주·전남지역 322개 적십자봉사회 회원들이 한 자리에 모여 화합과 친선을 도모하는 ‘제9회 회망풍차 적십자봉사원 대회’가 열렸다.

/나영주기자 mjna@kwangju.co.kr

전남 농어촌 42곳 ‘나홀로 소방서’

34곳은 공무원 아닌 지역의용소방대원이 근무

장비는 펌프차 1대가 전부…출동 때 ‘1인 다역’

전남지역에서 단 한 명의 소방관이 근무하는 ‘나홀로 소방서(지역대)’가 40곳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효율적인 화재진압과 구조·구급 활동을 위해서는 최소 2명 이상이 필요하지만 현재 상황에서 인력을 늘릴 수도 없어 화재우려가 커지는 겨울철을 앞두고 소방당국의 고민이 깊다.

23일 전남도에 따르면 도내 소방관 서는 소방서 12곳에 안전센터 53곳,

적이다. 도내 22개 시군의 면(面) 개수가 198곳인 점을 감안하면 절반 가량인 93곳은 지역대조차 없는 셈이다.

나홀로 소방서의 화재 장비는 펌프 차 1대가 전부이며 근무자는 화재 신고접수와 출동, 진화, 구조구급 등 ‘1인 다역’을 해야한다. 또 지역대 중 구급차가 배치된 곳도 34곳에 불과하다.

지난해 전남지역에서 발생한 화재 건수는 2300여건으로 23명이 숨지고 47명이 다치는 등 인명피해 70명, 재산피해 169억6000만원에 달했다.

/오광렬기자 kroh@kwangju.co.kr

마산發 홍역 전국 확산 ‘홍역’

9개 시·도 133명…전남 1명

0~1세 영유아가 절반 차지

경남 마산에서 시작된 ‘홍역’이 전 국으로 확산하고 있다. 0~1세 영유 아가 절반이다.

대표적인 ‘후진국 감염병’인 홍역

은 매우 높은 급진성 바이러스 질환

으로 주로 면역력이 약한 영유아에게

발생한다. 23일 질병관리본부 통계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 22일 까지 홍역 환자는 전남 1명 등 9개 시·도 총 133명으로 보고됐다. 이 가운데 3명은 국외에서 감염됐다.

지난해 홍역 환자는 단 3명에 불과 했다. 이마저도 2명은 국외 감염자로 판정됐으며 국내 감염자는 단 1명뿐이었다.

현재까지 홍역 환자 수는 경남 82

명, 경기 22명, 강원 10명, 서울 7명, 부산 6명, 대전 2명, 인천·전남·경북

각 1명 등이다. 이 가운데 0~1세 영 유아가 73명으로 55%를 차지하고 있다.

보건당국은 생후 12~15개월과 4~6세 등 두 차례 예방접종하도록 하고 있다. 홍역이 유행하는 국외지역을 여행하기 전에는 반드시 예방접종을 해야 한다. 보건당국의 한 관계자는 “6세 이하 소아는 반드시 예방접종을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연합뉴스

50년 전통 대를잇는 한의원

북경당 한의원

건강한 다이어트
한방 비만클리닉

체성분 분석기 도입, 체지방분해기, 시술, 고주파 저방분해 시술

한의학 박사 박상준 원장

동신대학교 외래교수 역임



진료문의 062)227-7575

진로/시/간
평 일 : 오전9시~오전7시
토요일 : 오전9시~오전4시
일요일/휴일 : 공휴일은 오전진료

신협을 알아야
재테크의 완성!

1인당 예금비과세
3,000만 원
(생계형 / 세금우대 별도)

대출한도 25억 원

한도는 높게 ↑ 최대 ~80%
금리는 낮게 ↓ 최저 4.3%~

광주원광신협
대표전화 1599-4474
궁동본점 | 금호지점 | 풍암지점

CJ hello vision

헬로tv
사은대축제

헬로tv에서 마련한 즐거운 이벤트!
모두가 부러워할 다양한 혜택을 만나보세요!

HOME 총스토리가 hello*를 응원합니다

1 결합상품 및 출제안

디지털tv
국내 최대 채널을 보유한
No.1 디지털 케이블 방송
월 8,000원
(VAT 포함 8,800원)

인터넷
국내 최고 기가급 속도
초광속 인터넷 상품
월 10,500원
(VAT 포함 11,550원)

전화
품질은 그대로, 요금은 절반
말콤한 접수화
월 2,000원
(VAT 포함 2,200원)

* 3년 연장 기관 기관 / 이코노미, 광랜라이트 상품 기관

2 헬로tv 미니팩

고객님들을 위한 합리적인 선택! 원하는 채널만 쑥쑥 골라보세요!

상품명

상품설명

주요채널

가격

상품명

상품설명

주요채널

가격

SBS Golf J Golf

NBC GEO ADVENTURE

MBC NEWS

KBS 100% Disney Junior

Arte TV

www.cjhellevision.com

가입문의 1588-3450